

달라졌다. 개구쟁이들이라 전에는 무슨 사고라도 낼까 조마조마했던 적도 많았는데 요즘은 나보다도 더 화재 예방에 대하여 주의하고 조심한다. 전기코드를 다섯, 여섯 개씩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멀티탭에도 코드를 세 개 이상 연결하면 과열되어 불이 난다며, 컴퓨터를 할 때는 게임기는 사용하지 않을 만큼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 작은 아이는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잘못 만지면 감전이 된다며 욕실에 갈 때는 꼭 수건부터 챙겨 젖은 손을 물기 하나 없이 닦은 다음에야 화장실 전기 스위치를 켤 만큼 우리집 아이들의 안전의식은 각별하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미처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더라도 하면 요란스럽게 난리를 치고 빈 부탄가스통이라도 나오면 팔을 끌고 나와 못과 망치를 주며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라고 하고는 자기네들은 멀찍이 물러나서 지켜본다.

“의리 없는 놈들! 가스통 터지면 아빠만 죽으라고 너희들만 멀리 도망가서 지켜보냐!”

“몇 년 만 더 있다 제가 더 크면 그때 제가 똥을 싸요! 아빠 미안!”

생활 속 화재 예방. 작은 부주의에서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 사소한 안전규칙조차 잊고 살기 쉬운데 아이들의 유별스런 안전의식 덕분에 나 역시 더욱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집 아이들이라고 유별나서 화재 예방에 대하여 투철한 것은 아닐 것이다.아이들이 화재 예방 및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게 된 것은 가스폭발 화재사고로 이웃집 형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리라.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육 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인 안전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화재 예방 교육은 백 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시청각 교재와 안전체험 견학 등을 통하여 눈과 몸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적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생활 속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화재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여 화재 안전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른 사례별 안전생활방법 등을 저 연령의 어린 학생들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교과목 과정에 포함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를 아이들에게 더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화재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 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화재사고로 인한 가정과 사회의 불행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이다.

화재 예방에 대하여 빠르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화재사고로부터 비극을 막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비법이자, 우리 부모들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일 것이다. ☹



화재 시 대피요령

화재예방시리즈 4

소화기 등으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재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이나 노인, 환자, 임산부 등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먼저 대피하도록 도와줍니다.



1 화재경보가 울리면 지체하지 말고 유도등의 표시방향을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세요.



2 엘리베이터, 무빙워크가 아닌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출 경우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단,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이용 가능)



3 피난 시 방화문을 꼭 닫으세요. 방화문은 화재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켜 안전한 피난을 도와줍니다.



4 연기가 많이 발생한 곳에서는 젖은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5



대피할 때에는 화재의 진행방향에 주의하여 막다른 장소는 피하세요.

6



문 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문을 함부로 열지마세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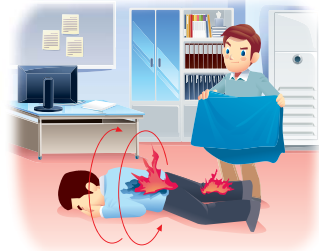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으로 새어올 경우에는 담요나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틈을 막으세요. 실내에 갇혔을 경우에는 갇힌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세요.

8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에 물을 뿌리고 커튼은 떼어내세요.

9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빨리 바닥에 엎드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 좌우로 구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담요나 수건으로 구르는 사람을 덮어줍니다.

숨어 있는 열정을 깨워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채지형 / 여행작가 www.traveldesigner.co.kr

지구편 반대쪽에 자리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곳에 가면 뜨거운 열정을 만날 수 있다. 탱고와 축구, 와인과 아사도, 에비타와 마라도나, 보르헤스와 가르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이콘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열정을 품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열정'이라는 단어로 기억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남미의 파리'라 불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푸른 바다만큼 깊고 깊은 그곳의 아름다움 속으로 떠나보자.

영혼의 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아르헨티나 사람에게 탱고는 삶이자 역사요, 문화이자 위안이다. 탱고를 보는 것은 예술을 보는 것인 동시에 아르헨티나를 보는 것이다. 19세기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아르헨티나로 흘러온 이방인들의 설움과 아픔, 절망과 외로움이 탱고의 애절한 가락과 현란한 몸짓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탱고는 눈물이다. 자존심 강한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후 되돌아 몰래 흘리는 눈물이다. 탱고는 서늘이 퍼린 칼날이다. 결코 마주치지 않는 눈빛과 과격한 발동작은 중세 기사들의 칼날처럼 날렵하고 비장하다. 탱고는 사랑에 빠진 여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랑에 빠진 여인, 탱고는 그렇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만큼 열정적이다.

탱고 없는 아르헨티나는 김치 없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행자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 '몸으로 쓰는 시', '춤추는 슬픈 감정' 등 수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탱고. 주말이 되면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에서 밤낮으로 절절한 탱고가 흐른다.

탱고를 보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토르포니를 찾았다. 카페 토르포니는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보르헤스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예술가라면 이곳의 커피를 즐기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다. 탱고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는 까를로스 가르델의 흉상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

